

# 치솟는 배달수수료에 영세 자영업자들 '시름'

**3대 배달앱 중개수수료 6.8~15% 정부, '수박 겉핥기식' 지원에 원성 무료배달 경쟁...공공배달앱 이용 ↓ "대형 플랫폼 수수료 과다 막아야"**

"배달 수수료를 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때문에 줄 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배달앱 사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치솟는 배달 수수료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배달료 지원 등 수수료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4일 찾은 광주 서구의 한 배달전문식당. 지난 3월부터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모(47)씨는 "배달앱 수수료(6.8~15%), 배달업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다 떼고 나면 이윤이 거의 없다. '배민1'의 경우엔

중개수수료와 함께 건당 3000~4000원을 별도로 떼간다. 1만2000원짜리 음식을 하나 팔면 겨우 2000원 이익이 남을 때도 있다"며 "부동산 등을 보면 배달전문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표면상 수수료는 10%가량이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20%를 훌쩍 넘어간다. 배달 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접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임별(32)씨는 수수료 부담 탓에 배달 장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임씨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부담돼 배달 장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배달의민족 등 3대 배달앱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대형 배달플랫폼만 찾고 있어 배달 장사를 시작한다면 하는 수 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자영업자들이 높은 배달 수수료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안을 내놓아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배달료·전기료·임대료 등 각종 비용 지원, 폐업자 재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반기 중 배달 수수료 사안에 관한 상생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인이 꾸준히 호소하던 배달비 문제는 결국 '자율규제' 수준으로 발표됐다.

자영업자들은 전기료·배달비 등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음식점'의 매출 기준(연매출 6000만원 이하)이 낮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데다가 배달 수수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임시방편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막을 방안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이 당초 기대와 달리 이용률이 떨어져 결국은 대형 배달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21년 7월 출시한 '위메프오'의 경우 2%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출시 후 지난달까지 누적 가맹점 9615개, 주문 122만여건, 매출액 약 306억원을 달성했고 배달앱 점유율도 16%까지 증가했다. 광주시는 최근 신한은행의 '땀겨요'를 추가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 배달플랫폼들의 무료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공배달앱 이용자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또 식당에 무료 배달을 적용해 주는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상인이모씨는 "원래도 공공배달앱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더 줄어든 것 같다"며 "처음 공공배달앱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는데 결국은 대형 배달플랫폼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홍보를 확실히 해주거나 대형 플랫폼의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배달앱을 주로 사용한다는 전모(27)씨는 "주말마다 쿠폰을 나눠주는 등 혜택이 많고 중개수수료가 낮아 '착한소비'를 할 수 있어 공공배달앱만 사용하는데 주변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등록된 매장이 적은 것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원인인 것 같다. 소비자는 가맹점 수가 적고 이용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앱 사용을 꺼리고 자영업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 오늘 견본주택 개관

**최고 34층 전용 84~140㎡ 226가구 편의·공원·교통·교육 윈스톱 인프라**

광주지역 첫 '스위첸' 브랜드 단지로 선보이는 '광주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 이 견본주택을 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광주 서구 치평동 1208-5번지 일원(엠티마트 상무점 소재지)에 들어서는 '광주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2개동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전용면적 84~140㎡의 아파트 226세대와 지상 1~2층에 조성되는 73실 규모의 상업시설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전용 84㎡A 29가구 △84㎡A1 28가구 △84㎡A2 28가구 △84㎡A3 27가구 △84㎡B 62가구 △95㎡ 50가구 △140㎡P 2가구 등 전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고, 100% 4Bay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다.

청약일정은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이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9일~31일 진행된다.

반경 300m 내 위치한 광주시청을 필두로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주교통공사, 전남지방우정청, 광주가정법원, 광주서부경찰서 등 수십여 개의 관공사가 밀집해

있다. 참고형 할인매장인 롯데마트백스가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상무병원 및 광주한국병원 등 대형병원이 인접해 있다. 치평동 학원가가 도보권에 있고, 유촌초, 동명중, 상무고 등이 가깝다.

운천로·빛고을대로·무진대로·상무대로 및 광주제2순환도로 등을 통해 인접지역 및 광주전역을 쉽게 오갈 수 있다.

남향위주 단지배치와 전 세대 선호도가 높은 4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KCC건설만의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통해 가시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또한 유리난간대 조망형 발코니 창호 설계로 5·18기념공원 및 상무지구의 파노라마 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공간 내부는 타입에 따라 복도팬트리 또는 주방팬트리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해 침실 불박이장, 안방 드레스룸과 안방, 주방 및 거실 우물천장, 와이드형 주방 등이 적용된다. 여기에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듯한 호텔식 분리형 욕실인 'Premium Bath(프리미엄 배스)', 친환경 마감재 등을 다수 적용한다.

광주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의 견본주택은 광주 북구 중흥동 323-5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입주는 2025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최권범 기자

## 조선내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

**경쟁력 강화·신인도 제고 지속가능 ESG 경영 강화**

조선내화주식회사는 4일 포항공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이상암 조선내화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CP 강화를 선포하며 "고객과 모든 사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회사를 만들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램을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이는 공회사의 경쟁력 강화, 신인도 제고 및 이미 지 향상을 넘어 대화물업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하는데 일조하게 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업 생존의 문제이며 이는 ESG경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내화주식회사는 지난 2월 박철영 부문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대표이사 직속의 내부통제팀이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원하며, 향후 공정위 등급평가 참여 등 준법·윤리경영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의 자율적 준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한 솔선수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선서문을 함께 낭독하며 준법·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포항, 광양, 서울 팀장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권범 기자

## 현대차·LG엔솔,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 준공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및 채굴량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에 세운 배터리셀 공장 'HLI그린파워'가 준공됐다.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은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장착해 '디 뉴 뉴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시작한다.

지난 3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KNIC: Karawang New Industry City)에 위치한 HLI그린파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차량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잠재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는 동남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재테크 칼럼

### 이미 다가온 '상가 부동산' 몰락의 시대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상업용 부동산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빌딩이 코로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 무려 5분의1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IT 기업이 많은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이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오피스빌딩 평균 공실률이 20%

를 넘나들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줄 줄이 하락하고 있다. 워싱턴이나 뉴욕 등 주요 도시의 대형 상업용 건물은 4분의1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세계 최대의 투자 운용회사인 블랙록이 뉴욕 중심가인 맨하탄에 10년 전 한화로 8000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20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은 중소형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

히 올해와 내년이 더욱 위험한 시기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이 일반적으로 5년 고정금리로 실행되는데 기준금리가 0%대이던 코로나 위기 때 매입한 상업용 부동산들이 늘어난 이자와 공실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서늘한 상황은 한국 상가건물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상권인 강남대로의 상가 공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률이 올해 1월 기준으로 9.9%에 달하고 있고 상가 경제 건수는 작년 같은 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무려 79%가 늘어났다. 경기 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수치는 상가 부동산의 몰락의 시대가 다가온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비틀거리는 한국경제에 설상가상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상가 부동산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이자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발전과 나 홀로 문화의 확산, 인구감소 AI 과학의 진보도 상가 공실률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 확실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담이 유행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건물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행군을 감내해야 할 것 같다. 인구감소와 함께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상가건물의 과거 영화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